

볼노(Bollnow)의 체험공간론과 장소의 페다고지*

남 호 엽**

Bollnow's Theory of Experiential Space and the Pedagogy of Place*

Ho Yeop Nam**

요약: 이 연구는 볼노의 체험공간론에 기초하여 장소의 페다고지를 재음미하는데 초점이 있다. 볼노가 보기에 인간은 집과 그 외부의 넓은 세계 사이 관계의 산물이다. 집과 바깥 세계 사이 관계 설정은 참된 거주자 되기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이 상황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잘 돌보는 상태이다. 참된 거주는 일정한 장소에 뿌리내림, 내부와 외부 공간의 긴장을 극복함, 신뢰에 기초하여 외부 세계에 투신함을 의미한다. 볼노의 체험공간론은 참된 거주를 위한 교육론 정립에 기여한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은 집과 그 바깥 세계 사이 관계 구도로 설정할 수 있는데, 집의 외부는 공공 세계와 미지의 세계이다. 둘째, 집의 외연 확대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학습자가 살고 있는 고장을 참된 거주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은 오솔길을 걷는 도보 여행자처럼 경관의 내재성을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를 가져야 진정한 거주자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체험공간, 거주, 공간의 인간학, 교육과정의 지역화, 경관학습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reexamining the pedagogy of place based on Bollnow's theory of experiential space. In Bollnow's view, humans are the produ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and the wide world outside it.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 and the outside world is done in terms of becoming a true dweller, and this situation is a state in which humans take good care of their lives. True dwelling means taking root in a certain place, overcoming the tension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pace, and committing to the outside world based on trust. Bollnow's theory of experiential space contributes to establishing an educational theory for true dwelling. First, the school curriculum can be established as a struc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me and the outside world, where the outside of the home is the public world and the unknown world. Second,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home, regionalization of school curriculum should focus on the process of turning the area where learners live into a place of dwelling. Third, learners must have learning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inherent nature of the landscape, like a wanderer walking on a trail, so that they can live the life of a true dweller.

Key words: experiential space, dwelling, anthropology of space, regionalization of school curriculum, learning of landscape

I. 서론

장소의 페다고지 혹은 장소 기반 교육(place based

education)은 지리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로서 장소를 가르치는 시도 그 이상으로 교육적인 함축이 있다. 장소의 페다고지는 근대교육의 리모델링 전략으로까지 의미 부여

* 이 논문은 2023년 한국사회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다.

**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ynam@snue.ac.kr

를 할 수 있다. 장소 기반 교육은 지리교육뿐만 아니라 생태교육, 과학교육, 수학교육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공교육의 개선 시도로 실천되고 있다(Rubel and Nicol, 2020; Hougham, Eitel and Miller, 2015). 그런데, 장소의 페다고지는 매우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역 사회교육, 야외교육, 경험학습, 통합교육, 문제해결 및 탐구학습 등으로 회자된다(Sobel, 2004; Hutchisin, 2004; Gruenewald and Smith, 2010; Demarest, 2015). 또한 장소 기반 교육은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 차원, 생물물리적(biophysical) 차원, 심리적 차원으로 유형화되기도 한다(Ardoin et al., 2012; Yemini, Engel and Simon, 2023). 장소의 페다고지가 이렇게 다양한 이해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장소’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중적 의미 세계가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장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으로 지리학계에서 활발히 시도되어 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인본주의 지리학의 전통에서 장소의 개념화를 도모한 이래로 이제 는 일정한 분류 체계들이 있기도 하다(Tuan, 1976; Seamon and Lundberg, 2017). 이를테면 Cresswell(2004)은 장소 논의 계보를 기술(記述)적 접근, 사회구성주의 접근, 현상학적 접근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한편, 장소 개념은 최근 지리학 외부 인문사회과학 전반에서 연구의 개념적 프레임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Tuck and McKenzie(2015, 77-78)는 탈식민주의 시각에 기초한 장소 탐구 방식을 모색하면서 접근 논리를 유형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소 연구의 패러다임을 실증주의, 후기 실증주의/해석주의, 비판 접근법, 포스트모더니즘, 신유물론, 토착(indigenous) 연구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장소의 의미는 연구의 접근 방식에 따라 상호 차별적이거나 보완적일 수 있는데, 이것이 장소 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갈래로 나가도록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교육실천가들에게 장소의 의미와 관련된 이론적, 방법론적 긴장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듯하다.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장소 기반 교육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입장에서 교육 실제의 모색에 앞서 장소의 개념화에만 골몰할 수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 집단에서 특정한 장소의 개념화 방식에 기초하여 장소의 페다고지를 논의하는 사례가 다채롭게 제시된다면 학교현장에서는 더욱 내실 있는 장소 기반

교육의 실천이 가능할 것이고, 본 연구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한다. 요컨대, 장소의 페다고지가 가지는 이론적 의미와 교육 실재를 더욱 숙성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즉, 이 연구에서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볼노(Otto Friedrich Bollnow)의 체험공간론을 살펴보고, 이 시각이 장소의 페다고지에 주는 함의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볼노는 1963년 저술 『인간과 공간』(*Mensch und Raum*, 이기숙 역, 2011)에서 체험공간론을 철학적 인간학의 측면에서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볼노는 자신의 체험공간론을 교육학 저술, 『인간학적 교육학』(*Anthropologische Pädagogik*, 한상진 역, 2006)에서 교육과정 담론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볼노의 대표 저술을 중심으로 그의 체험공간론을 이해하고 이것의 교육학적 의미를 장소의 페다고지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볼노가 『인간과 공간』에서 제시한 핵심 메시지는 ‘인간 삶의 공간성’으로서 ‘거주의 의미 파악이고, 이것은 ‘인간이 공간에서 누리는 참다운 삶’을 말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398). 여기서 ‘인간 삶의 공간성’이라는 발상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포착하는 기본 관점이다. 인간과 공간은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이 공간을 경험한다는 시각이 아니다. 공간은 시간처럼 인간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시공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Heidegger, 2000, 이기숙·신상희·박찬국 역, 2008, 201). 아울러, 볼노에게 논의의 사안으로 ‘공간은 ‘수학적 공간’이 아니라 ‘체험공간’을 말한다. 체험공간은 수학적 공간처럼 그 내부가 균질적이지 않다. 체험공간은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현실의 구체적인 공간’을 말하며(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9), 그래서 이 공간에는 ‘우월한 중심점’, ‘우월한 좌표계’가 있고, ‘체험공간 속의 구역과 장소는 각자 질적인 차이’가 나타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 요컨대, 체험공간은 추상적 공간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 차별화된 공간이며, 이른바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볼노는 ‘체험공간의 탐구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공간성 구조’를 해명하고자 했고(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24-25), 서론을 포함하여 6개의 장으로 저술을 구성하였다. ‘인간 삶의 공간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론 이외에 1부 ‘공간의 기본적인 분류’, 2부 ‘넓은 세계,

3부 ‘안식처로서 집’, 제4부 ‘공간의 여러 관점들’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저술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의 축은 안식처로서 집과 집의 외부 혹은 넓은 세계 사이 관계 구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둘 다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체험공간이며, 양자 사이의 관계를 거주, 즉 공간 속에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체험공간의 기본 구조를 ‘집’과 ‘넓은 세계’ 사이 관계 설정 차원에서 살펴보고, 참된 거주를 위한 교육의 접근 방식을 장소의 페다고지 차원에서 탐색하였다. 또한 장소의 페다고지 시각에서 볼노의 체험공간론을 해석하면서 교육의 실제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탐색하였다.¹⁾

II. 체험공간의 기본 구조: ‘집’과 ‘넓은 세계’

1. 넓은 세계 속의 인간 존재

볼노는 ‘집’과 그 외부 ‘넓은 세계’ 사이 관계 설정의 구도로 체험공간론을 전개한다. 특이하게도 그는 집으로부터 이야기를 먼저 전개하지 않고 ‘넓은 세계’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그것은 왜일까 아마도 볼노는 귀환을 인생의 의미로 보았기 때문인 것 같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06). 귀환은 집을 떠나 갔다가 집으로 되돌아옴을 말한다. 집을 떠나간 곳은 바깥 세상이고, 되돌아 온 집은 고향이기도 하다.

“떠나고 돌아온다는 이중의 행위에는 공간 자체가 두 영역으로 나뉘고 그중 안쪽의 좁은 영역은 바깥의 넓은 영역에 의해 동심원처럼 둘러싸인다는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집과 고향이라는 좁은 영역, 그리고 이곳을 떠난 인간이 진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바깥의 넓은 영역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06).

볼노는 두 영역으로의 분할이 체험공간 전체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틀지운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는 두 영역 사이 관계 구도를 해명하기 위하여 ‘넓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도하고 이후 ‘안식처로서의 집’을 이야기한다. ‘넓은 세계’를 논의할 때 그 의미는 집의 측면에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볼노가 보기에 ‘집’ 외부의 바깥 세상은 ‘넓은 곳’(die

Weite), ‘낯선 곳’(die Fremde), 그리고 ‘먼 곳’(die Ferne)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13). ‘넓은 곳’은 인간이 좁은 공간을 벗어나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공간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14). 인간에게 ‘낯선 곳’은 일시적인 체류지이고 결국 인간은 목적 달성 후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다. 즉, 낯선 곳은 배움과 수용의 대상이고 인간 성숙의 재료이다. 그런데, 볼노가 보기에 낯선 곳과의 만남은 ‘자신의 적응력’을 고려하여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를 낯선 것을 습득할 때의 조형력이라고 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18).

넓은 세계로서 ‘먼 곳’은 ‘동경’의 대상으로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계기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20). 먼 곳은 도달하기 힘든 곳이지만 인간을 신비롭게 유혹한다. ‘인간은 먼 곳에서 무엇을 찾을까?’라고 볼노는 질문한다.

“... 먼 곳에 대한 동경은 ‘내면으로 가는 신비로운 갈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것의 최종 목표는 귀향이라는 점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 같다. 고향에 대한 향수와 먼 곳을 향한 동경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게 아닌지 물어야 한다. 인간이 자신의 바깥으로 나가 먼 곳에서 찾는 것은 바로 자신의 깊은 본질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20).

요컨대, 넓은 세계의 일종으로 먼 곳이 있는데, 이 역시 집과 관련이 있다. 먼 곳은 동경의 대상이며,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본질적인 세계이다. 도달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망은 누군가 삶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행위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21). 또한 먼 곳은 고향 상실의 상태이고 이에 고향 회복의 추구를 도모하도록 한다. ‘고향의 구축은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진 어릴 적 고향을 이제는 꿈에서나 실현되는 이상의 고향으로 새롭게 만드는 행위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22).

이상에서와 같이, 볼노에게 인간은 집과 그 외부인 넓은 세계 사이 관계의 산물이다. 인간은 집에만 머물 수 없고, 외부 공간으로의 진출이 필연적인데, 저 멀리 바깥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집 혹은 고향과 격리되는 상태가 아니다. 먼 곳은 인간에게 동경의 대상으로 호기심

에 기초한 이동을 부추기지만, 인간은 그 먼 곳에서 고향을 응시한다. 돌아갈 고향이 없을지라도 체험공간으로서의 먼 곳은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의 근원에 대해 사색하면서 의미의 본질을 도모하도록 한다.

2. 인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정처 없이 살아갈 수 없다. 물론 평생 동안 세계 곳곳을 여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또한 언젠가 집을 떠난 존재이다. 인간의 삶은 일정한 질서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삶의 중심이 되는 기준점으로 ‘집’이 있고, 이 집은 인간이 사회적 삶을 영위할 때, 출발점과 귀환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1-162). 그런데 이러한 인간 삶의 중심으로서 집은 막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의 중심으로서 집은 피상적 소유물이 아니며, 인간 스스로 창조해야 할 대상으로 인간은 자기 집에서 사는 방식, 즉, 거주(Wohnen)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3-164). 거주하는 방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거주 의미 파악이 필수적이다.

볼노가 보기에, 거주는 ‘특정한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4). 즉, 거주는 인간 존재의 뿌리 내림인데, 이 상황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형성 지구에서의 ‘체류’이다.

“인간이 지구상의 고정된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으려면 임시로 아무 곳이나 정착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주를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땅 위의 한 지점에 터를 잡아야 하고, 그를 다시 몰아내려는 세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이곳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어야 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7).

볼노에게 집 바깥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에, 방어 진지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른바 거주 장소로서 집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 구도에서 ‘성채’로서 기능하며, 동시에 집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은 뿌리내림을 가지면서 안도감을 느낀다.

볼노는 이 ‘성채’라는 표현을 생텍쥐페리에게서 가져왔다. 생텍쥐페리(Saint-Exupery, 1948)는 ‘성채’라는 작품

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도시의 건설자다. 나는 길을 가는 대상 행렬을 세웠다. 그들은 바람이 몰아치는 사막에 있는 씨앗에 불과했다. 그러나 나는 바람에 저항하며 씨앗을 땅속에 묻는다. 삼나무가 신의 영광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7-168에서 재인용). 볼노는 이 표현을 통해 인간은 일정한 장소에 뿌리를 내려야만 가혹한 사막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고(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8), 이것이 바로 거주라는 인간의 생존 방식이라는 견해이다.

한편 볼노는 거주 의미 천착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의 논의도 살펴보고 있는데, 인간의 존재 방식은 죽을 자들, 즉 필멸의 존재로서 인간이 지상에 머무는 것, 즉 거주한다는 것이라는 시각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5). 알려진 바와 같이, 하이데거(Heidegger, 2000a)가 보기에 인간은 죽을 자이고,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의 관계 즉, 사방세계에서 존재하고, ‘죽을 자들은 사방을 그것의 본질 속으로 소중히 보살피는 방식으로 거주한다’(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2008a, 190-194). 더 나아가 하이데거(Heidegger, 2000b)에게,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거주함은 시 지음이며, 즉, 마치 시인이 시를 창작할 때 사용하는 마음의 움직임이며, 이것은 사방세계의 여러 차원들에 대한 섬세한 가늠함을 말한다(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2008b, 225).

이렇게 집은 우리 인간에게 안도감을 주는 공간이며, 동시에 ‘위안’과 ‘내밀함’의 체험을 가지게 하는 ‘꿈의 영역’이다(Bachelard, 1957, 곽광수 역, 2003, 135-136). 그리하여 안도감의 공간은 위협을 받는 곳이며, 외부 공간 즉, 바깥 세계에 대조적인 ‘평화’의 공간이면서 내부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진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68-169). 그리고 내부 공간은 휴식의 장소이고, 외부 공간은 노동의 장소로서 양자 사이에는 경계가 발생하고 있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78). 요컨대, 집은 일정한 영역화의 산물이며 인간 삶의 기본 구도를 틀 지우고 있으며, 동시에 ‘귀향’과 ‘집을 떠남’이라는 인간 삶의 두 가지 이동 경로를 내재하고 있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244-245).

지금까지 논의한 거주 장소로서 집이 가지는 의미를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자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인간에

게는 삶에서의 두 가지 이동이 있는데, 이것은 하루의 일상을 만드는 잠들고 깨어남이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집을 떠나 외부 세계로 나아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잔다. 하루의 삶이 잠들고 깨어남인 것처럼, 인생은 집을 떠남과 귀향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집을 떠남 바깥 세계는 노동을 수행하는 외부 공간이며, 우리가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편 집은 내부 공간으로 휴식의 장소이기에, 안도감과 평화의 공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집과 바깥 세계 사이에는 경계가 발생하고 있고, 영역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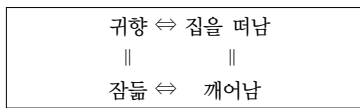


그림 1. 삶에서의 두 가지 이동

집	⇔	바깥 세계
내부 공간(휴식)	⇔	외부 공간(노동)
안도감과 평화의 공간	⇔	위협을 받는 공간
영역화된 집과 바깥 세계		

그림 2. 인간 삶의 기본 구도

3. 양자 사이 관계 설정: 참된 거주자 되기

볼노가 보기에 인간은 참된 거주를 지향해야 하며, 참되지 못한 거주로 ‘비거주’와 ‘잘못된 거주’가 있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398). 먼저 ‘비거주’는 누군가 ‘고향 없이 적대적인 공간에 내던져짐’의 상태이고, ‘잘못된 거주’는 ‘소심하게 집에만 집착하는 경우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399). 비거주와 잘못된 거주를 지양하는 참된 거주 모습은 무엇인가?

“거주란 낯선 매개체 속의 임의의 자리에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집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다. 인간이 거주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던져져 있음이란 상태를 자신이 노력하여 거주 상태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357).

이른바 참된 거주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노력으로 성취해야 하는 과제이다. 볼노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참된 거주를 지향하고 있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399). 첫째, 인간은 ‘공간 내의 일정 장소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단단히 토대를 다지고 안식을 주는 개인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인간은 자신만의 ‘내부 공간에 웅크리고 있을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인간은 ‘집에 거주하면서도 더 큰 공간 전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참된 거주 모습에 대하여 좀 더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첫 번째 참된 거주 방향은 인간이 어디엔가 일정하게 뿌리 내리는 상황으로 이른바 ‘정주’라고도 말할 수 있다. 개별 주체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터전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거주는 ‘분명한 위치의 공간 속에서 안락을 얻고, 이 공간 속에서 굳건하고 밀바탕이 되어지는 기초를 발견’하면서, ‘그러한 기초 위에 인간은 다양한 근거가 되어지는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Bollnow, 1983, 한상진 역, 2006, 156). 이른바 거주는 인간이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존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사안인 것이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만의 내부 공간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위협적이고 위험한 외부 공간도 온전히 삶 속에 포함하고, 인간의 삶이 실현되는 유일한 바탕인 내부와 외부 공간의 긴장을 이겨낼 것을 요구’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399). 인간의 삶은 이른바 외부 공간으로부터의 탈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며, 그 외부 공간과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수행해 내야 한다. 거주 관점, 즉, 집을 소중히 한다는 발상이 수동적인 인생살이를 의미함은 아닌 것이다.

세 번째, 참된 거주 모습은 두 번째 방향의 연장선 상에서, 집의 외부 세계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은 ‘위협적인 외부 공간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자기 집의 굳건함에 대한 순진한 믿음을 극복하고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큰 공간에 몸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399). 즉, 인간은 내부 공간의 안정감에 기초하여 외부 공간으로의 투신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감이 참된 거주 관점에서 요청되고 있다. 요컨대, 참된 거주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에 기초하여 새로운 삶의 영역들을 창조해 나가는 활동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참된 거주 양상은 저절로 사람들 각

자에게 생기지 않으며,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쏟아부어 온전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398). 요컨대, 참된 거주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돌봄이며, 그것은 일정한 장소에 뿌리내림, 내부와 외부 공간의 긴장을 이겨냄, 신뢰를 가지고 외부 세계에 투신함을 말한다. 아울러, 이러한 거주 방식은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때, 미성숙한 학습자들을 위하여 기성세대들은 교육적인 배려를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원초적으로 인간은 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에, 우리는 ‘참된 거주를 위한 교육’이라는 발상과 만난다. 그렇다면, 참된 거주의 방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혹은 미래세대가 비거주와 잘못된 거주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III. 체험공간론에서 본 장소의 페다고지

1. 공간의 인간학 교육과정론

‘참된 거주를 위한 교육’은 교육과정 실제 차원에서 사유가 요청되고 있다. 집을 기준점으로 하여 학습자가 외부 세계를 전유하는 방식은 이미 근대교육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남호엽, 2019). 이른바 환경확대법으로 모형화되었는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집을 떠난 인간이 그 외부 세계를 장소로서 알아 나갈 때, 동심원적으로 스케일 구도를 가진다는 발상이다. 볼노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확대법은 그 의미가 재음미될 수 있다. 즉 어린이의 성장은 외부세계에 대한 적응력의 발달인데, 이것은 볼노가 말한 ‘낯선 것을 습득할 때의 조형력’이며, 이른바 ‘낯선 곳과의 만남은 “자신의 적응력”을 고려하여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18).

거주의 시각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논리를 구축하지는 않더라도 볼노에 의해서도 개진되었다. 그는 『인간학적 교육학』(*Anthropologische Pädagogik*)이라는 저술에서 『인간과 공간』을 교육학의 견지에서 재구성하였다. 이 저술의 8장, <공간의 인간학적 논의>가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교육과정 담론으로서 가치가 있다. 즉, 교육학의 측면에서 ‘인간 삶의 공간상’ 혹은 ‘공간의 인간학’을 개진하고 있다. 참된 거주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입장에서 하나의

교육과정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집과 그 외부 세계가 동심원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서술하면서 양자 사이 관계 설정의 스타일을 논의하였다.

“이리하여 끝없는 공간의 큰 영역에서부터 한 인간의 안정성의 하나의 좁은 분야가 정리되고 그것은 인간의 공간성을 위한 기본적인 구별이 외부와 내부 공간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넓은 세계인데 인간은 이 넓은 세계의 공통 생활 속에서 이웃과 친구와 적들과 함께 그의 작업을 완수하여야 할 그러한 넓은 세계이다. 그것의 다른 하나는 좁은 공간인데, 이 공간 속으로 인간은 물러나고,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삶의 수고 후에 다시 자기 스스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소이다”(Bollnow, 1963, 한상진 역, 2006, 151).

볼노가 보기에 집은 가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확대하는 방향이 바깥쪽이라는 견해로 보인다(Bollnow, 1963, 한상진 역, 2006, 151). 왜냐하면 집은 안도감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집에만 머물지 않고, 조금씩 집의 외부를 보살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의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가정이라는 집의 테두리 외부는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국가로 멀리 나아갈수록 친구뿐만 아니라 적들도 관계를 형성하는 공공의 세계이기에 거주화를 위한 노력이 힘겹다. 하지만 인간의 참된 삶은 언제까지나 집에만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서 ‘외부 공간의 요구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Bollnow, 1963, 한상진 역, 2006, 157-160).

한편, 볼노가 보기에, 참된 거주를 위한 교육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먼 곳으로의 도약’이다. 학습자들은 ‘도시’와 ‘국가’와 같은 정치 공공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다른 차원에서 바깥 세계를 체험해야 한다. 이른바 그 공간은 ‘인간을 뿌리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당기는 낯선 곳들과 먼 나라들의 그런 넓은 세계’이다. 이러한 미지의 공간 체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새로운 모험의 상징적인 성취’와 ‘공간의 끝없는 원경을 향한 신비의 감동’을 가지게 된다(Bollnow, 1963, 한상진 역, 2006, 162). 동시에 ‘먼 곳으

로의 도약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습관적인 행로로부터 탈출을 만끽하는 것’으로 이것은 ‘곤 모험과 낯선 곳에서 닥쳐오는 예상치 못한 우연들로 인한 즐거움’을 제공한다(Bollnow, 1963, 한상진 역, 2006, 161). 요컨대, 거주 시각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집 외부의 바깥 세계는 미지의 세계, 즉 동경과 탐험의 대상이 되는 공간도 포섭될 수 있다. 이는 볼노가 『인간과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서 주목한 ‘먼 곳’의 교육적 가치와 일맥상통한다. 지금까지 볼노가 집과 외부 세계 사이 관계 설정의 방식으로 논의한 ‘공간의 인간학 교육과정론을 도식화하자면 아래와 같다.

집 ↔	바깥 세계
	정치 혹은 공공의 세계: 외부 공간의 요구들 → 용기, 책임, 참여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
	(먼 곳으로의 도약) 미지의 세계: 동경과 탐험의 세계 → 새로운 모험의 상징적인 선취 → 공간의 끝없는 원경을 향한 신비의 감정
균형과 세계에 대한 신뢰	

그림 3. 공간의 인간학 교육과정 구조

2. 집의 외연 확대와 교육과정의 지역화

앞서, 집의 확장 즉, 집과 그 주변 세계를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거주화시키는 것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된 학교 교육과정 관행이 바로 교육과정의 지역화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거주 시각에서 볼 때, 집의 확장, 고향 만들기로서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고두보가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거주로서의 장소 만들기 경험이 축적되어야 더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거주자의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참된 거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출발점은 해당 지역의 장소들에 대한 이해에 있다.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생활 지역을 알면 알수록 그 지역을 장소로서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탐사 활동은 지역 이해력의 신장 측면에서 시도가 될 수 있다.

“(지역조사는) 이미 포화상태인 교육과정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대폭 개정된 학습 방법의 (잠재적인) 중추이다. 이 안에서 과학과 예술의 모든 양상은 아래에서부터 생태적으로 연결되며, 학생이 자신의 지역과 지역사회에서 겪은 경험이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지역조사는 어린 시절 문앞, 동네를 탐험했던 첫 경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 학생이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거나 분산되어 있었던 학생 주변의 환경, 특히 분리되어 있던 부분을 보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연결하고 통합하며 감독하는 것 모두를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성장의 모든 연속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깊어져야 한다”(Mumford, 1946: 151-152, Orr, 1992, 김기대 외 역, 2013, 190-191에서 재인용).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육과정의 지역화 관행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장소의 페다고지에서는 학습자의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를 추구해 왔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향의 리얼리티를 인식하도록 함은 그 학습자들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거주자가 되도록 하는 의도이다(김기대 외 역, 2013, 195).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임시적으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삶의 터전을 보살피는 경지까지 나아가야 한다. 요컨대, 교육과정의 지역화 관행은 거주 시각에서 학습자를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적인 배려 조치이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참된 거주로 본다면, 장소의 페다고지는 이러한 거주에 기여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참된 거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어린이들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사방 세계’를 보살피는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여한다. Orr(1992)는 장소의 페다고지를 통해 좋은 거주자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른바 훌륭한 거주(dwell)는 ‘장소에 대한 상세한 지식, 관찰 능력, 보살핌과 정착에 대한 감각의 획득, ‘거주지(habitat)에 특화된 윤리적 감각’의 고취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는 재거주화(reinhabitation)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상황이다(김기대 외 공역, 2013, 193-194). 참된 거주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선량한 시민이며,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거주 시각에서 재구성된 시민교육 관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우리가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집의 외연 확대 측면에서 조망하면서 재거주화 관점에서 정당화한다면, 지역화의 방식에 대한 성찰까지 나아갈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거주 시간에서 본다면, 형식적인 지역화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역화, 즉, 지역의 고유성을 제대로 교재화할 수 있는 노후우가 중대해진다. 그리하여 최근 토착 지식 체계의 문맥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 논리를 표방하는 접근 방식이 주목받을 수 있다(송원섭·조철기, 2023). 더 나아가 지역의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 체계가 가지는 교재로서의 함축을 인정한다면,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에 충실한 접근이 강조될 것이다.

또한 토착 지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해당 지역의 대지(land)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관념세계에 주목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토착 주민들이 향유해왔던 지리·역사적인 리얼리티들은 해당 지역의 장소성을 진실하게 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역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토착 주민들이 가진 시선 체계와 레파토리가 작동하는 경관과 장소들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도모해야 하겠는데, 이는 지역교육이 대지(land)교육으로 재개념화되는 상황이기도 하다(Tuck, McKenzie and McCoy, 2016). 이렇게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은 탈식민주의 관점과 같이 끊임없이 보편성의 신화를 해체하면서 다차원적인 맥락 구도에서 조망이 되어야 하겠다. 교육과정의 지역화 관행은 참된 거주의 관점에서 그 적실성이 지속적인 성찰의 사안이 되면서 장소의 페다고지를 다각화시킨다.

3. 경관과의 만남을 통한 장소학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볼노는 집과 그 외부 세상 사이 관계 구도에서 ‘넓은 세계’의 의미를 탐색하고 난 뒤, 집을 벗어난 인간이 외부 세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통해 전유하는 체험공간들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길과 도로’, ‘도보여행과 오솔길과 같은 주제를 통해서이다. 볼노가 보기에 인간은 집을 나가면 정해진 이동 경로, 즉, 길을 따르게 되는데, 길 중에서도 도로는 인간이 계획적으로 건설한 것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25-128). 그래서 도로는 이동의 통로이고, 고향이 아니기에 머무르는 곳이 아니며, 도로 속의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 뿐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36). 이러한

도로의 이동이 차량으로 장시간 진행될 경우, 운전자는 상당한 피로감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중 일부는 오솔길 체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작은 도보여행을 유도하고 있다. 운전자는 오솔길을 여유 있게 체험하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도보여행이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볼노는 도보여행의 특징을 정치 없음과 서두르지 않음으로 묘사했는데(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46), 도보여행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유 있게 걸어가되 그 자체가 목적인 이동’이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43). 오솔길은 앞서 언급한 도로에 대조적인 체험 공간이다. 오솔길은 지형에 순응하고 있고, 도보여행자 역시 그 오솔길에 적응해야 한다. 도보여행자의 처해 있음은 다음의 인용문에 잘 드러난다.

“도보여행자는 바닥 상태에 맞추어, 바닥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발걸음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며 걷는다. 울퉁불퉁한 강바닥 위로 냇물이 흐르듯이 도보여행도 불규칙적으로 흘러간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47).

도보여행자는 오솔길을 걷는 사람인데,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하여 바슐라르도 주목한 바가 있다. ‘오솔길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역동적인 대상인가! 언덕의 그 정다운 오솔길들은 우리들의 근육 의식에 얼마나 또렷이 남아 있는가? 어느 시인은 그 오솔길들의 전역동성을 단 한 줄의 시구로 이와 같이 환기하고 있다. 오 나의 길들이여, 그들의 리듬이여’(Bachelard, 1957, 광광수 역, 2003, 86-87). 상황이 이러하기에 도보여행자는 풍경과의 지속적인 대화 과정 속에 놓여 있다. 더 나아가 도보여행자는 풍경을 전유하면서 그 자신도 풍경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47). 오솔길을 걷는 도보여행자는 도로를 이동하는 상태와는 매우 다른 장소체험을 하게 된다. 다분히 도보여행은 주위 세계를 사물화시키지 않으면서 여행자 자신에게도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도록 한다. 그래서 볼노는 도보여행의 본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면서 그 인간학적 의미를 추론한다.

볼노가 보기에 도보여행의 본질은 목적으로부터의 해방, 즉, 정치 없음과 시간에 구속되지 않음에 있고, 좁은 곳으로부터의 탈주하면서 자유로운 곳으로 나아가감이다(이기숙 역, 2011, 150-151). 하지만 도보여행은 책임이 걸

여된 방종의 상태는 아닌데, 영혼 없는 방랑이 아니라 '근원으로의 회귀'를 가능하게 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53-154). 그 이유는 도보여행이 이루어지는 곳, 숲길과 오솔길 같은 곳은 풍경의 내밀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보여행은 '풍경의 내재성'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도보여행자는 이 과정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을 체험한다. 고향은 '태곳적 내밀한 행복으로의 회귀, 모든 사물의 근원으로의 회귀' 대상이기 때문에, 도보여행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회귀 현상을 목격하고, '자기 소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면서, 그 자신의 '본질 전체의 회춘'을 체험한다(Bollnow, 1963, 이기숙 역, 2011, 154-155). 인간은 도보여행을 통해 회춘을 하고, 자기 본질을 완성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오솔길을 온전히 전유하는 도보여행자는 그곳의 풍경을 풍요롭게 받아들이면서 근원적인 장소체험을 하게 된다. 도보여행자는 방랑자이며, 경관과의 우연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경관을 '존재'로서 마주하면서 세계 이해의 발판으로 삼도록 한다(Vandenberg, 1971, 84-88). 체험공간으로서 오솔길은 도보여행자에게 약동하는 삶, 행복으로 충만한 기쁨을 제공하면서 삶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하여 도보여행자는 활력을 얻고 인생을 더욱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된다. 학습자들은 도보여행처럼 경관의 내재성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장소학습의 기회를 가지면서 거주하는 삶, 잘사는 삶을 살 수 있기에, 교육자들은 이러한 장소 체험의 기회를 자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오솔길 도보여행자가 수행하는 경관과의 만남처럼 장소 학습에서도 학생들이 그러한 경험의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특히 현장학습을 갈 경우, 학생들이 도보여행자처럼 답사 장소의 경관을 전유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계기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경관을 전유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교사는 답사 장소에 자리한 가시적인 대상이 학습자에게 최대한 '풍경'으로 다가서도록 한다. 풍경은 새해 새벽에 일출을 보는 그 사람에게 떠오르는 태양과 주변 상황과 같은 모습인데, 일출 풍경에 사람이 흡수되는 듯한 상호작용이 있다. 교사는 교육적인 배려를 통하여 학습자가 특정한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드러나는 풍경을 마주하도록 한다(Julien, 2014, 김설아 역, 2016, 95).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

이한다는 마음의 준비가 충만한 상태에서 풍경으로서의 일출이 누군가에게 다가서듯이 교육적인 만남의 대상으로 풍경 역시 사전 준비, 이른바 교육내용과 연관된 교육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조성된 상황을 요망한다. 이른바 단원의 전개 과정 속 충분한 사전 학습이 선행된 상태에서 범례적인 경관과의 만남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몸 주체(body-subject)로서 학생들은 이러한 경관과의 만남을 통하여 장소에서 그리고 장소와 함께 하면서 실존적인 참여 과정으로 학습을 수행하는데, 이때 경관은 시각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소리, 냄새, 촉각, 맛, 그리고 마인드 스케이프의 양상을 띤다(Hung, 2014, 1141). 따라서, 교사는 현장학습이 이루어질 때, 답사 장소의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경관들과의 상호작용이 원만하도록 발문과 활동을 구상하고 이것이 학습지를 매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²⁾

IV. 결론

이 연구는 볼노의 체험공간론이 장소의 페다고지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볼노의 체험공간론은 그의 저술 『인간과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진술되었다. 그는 체험공간의 기본 구조를 '집'과 '넓은 세계' 사이 관계 설정 차원에서 다루었다. 볼노가 보기에 인간은 집과 그 외부의 넓은 세계 사이 관계의 산물이다. 인간 삶의 기본 구도 중 한 축인 집은 내부 공간으로 휴식과 안도감 그리고 평화의 공간이며, 바깥세계는 노동이 행해지는 외부 공간으로 종종 위협을 받는 곳이다. 집과 바깥 세계 사이 관계 설정은 참된 거주자 되기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참된 거주는 삶을 돌보는 상황인데, 이것은 일정한 장소에 뿌리내림, 내부와 외부 공간의 긴장을 극복함, 신뢰에 기초하여 외부 세계에 투신함을 의미한다. 요컨대, 인간에게 참된 거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이며 미래 세대에게 교육되어야 할 문명화된 삶의 형식이다.

볼노의 체험공간론은 지리교육으로 대표되는 학교 시민교육에 주는 함축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의 페다고지를 매개로 하면서 잘 드러난다. 먼저 볼노의 체험공간론은 '공간의 인간학' 측면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논리를 제공한다. 참된 거주를 위한 교육은 교육과정 실제 차원에서 환경확대법을 재음미하도록 하면서 교육내용의 배열 아이디어를 성립시킨다. 즉 집과 바깥 세계의 관계 구도 속

에서 외부 공간의 교육내용을 구상하도록 하는데, 하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요하는 공공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먼 곳으로의 도약에 기초한 미지의 세계로 동경과 탐험의 대상이다. 둘째, 집의 외연 확대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하다. 거주 시각에서 볼 때,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집의 확장, 고향 만들기로서의 의미가 있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을 거주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에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지역화, 즉,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교재화하는 시도가 중대해진다. 셋째, 볼노의 체험공간론 중 공간 이동의 시각, 특히 도보여행이 가지는 인간학적 의미가 장소 학습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도보여행자는 오솔길의 경관들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근원적인 장소체험을 행하는데, 이것이 교육에 주는 의미가 각별하다. 학습자들은 오솔길을 걷는 도보여행자처럼 경관의 내재성을 체험하는 장소 학습의 기회가 주어져야 거주하는 삶, 잘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요컨대, 볼노의 체험공간론은 장소 학습의 실천 논리 중 하나로 경관 학습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몸 주체(body-subject)로서 학생들은 장소에서 그리고 장소와 함께 하면서 경관 체험을 통해 실존적인 참여 과정으로 학습을 수행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볼노의 체험공간론에서 기본 구조는 집과 그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 설정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는 발상이다. 집은 고정된 실체로 보기보다는 장소로서 파악하는 시각이 중요하다. 집은 안도감과 평화를 느끼는 장소이며 그 경계는 가변적이다. 그래서 집과 외부 세계 사이 경계는 유연하게 사고함이 적절하다. 학습자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원만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을 벗어나 외부 세계를 전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대하다. 학습자들은 집에서 꾸준히 휴식을 취하고 난 뒤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주체성을 잃고 거대 질서의 피조물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의미를 발신하면서 그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때 집의 외부 세계를 학습자들이 스케일적 사유를 통해 촘촘하게 이해함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그 외부 세계를 리좀적 이해의 대상으로 포섭하는 과정이다. 결국 집의 외부 세계는 공동체와 자연 혹은 우주

이며 최근에 와서는 행성 지구로 인식되기도 한다. 볼노의 체험공간론은 학습자들이 집의 의미를 알고 집의 외연을 확대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제공한다. 또한 볼노의 시각은 학습자들이 이 세상을 장소로 충만한 곳으로 사유하면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를 숙고하도록 한다.

주

- 1) 국내에서 볼노의 공간론에 관한 연구 사례들 역시 『인간과 공간』 저술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거주 의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강학순, 2007; 김재철, 2009). 특히 볼노의 『인간과 공간』 저술이 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관한 논의로 변순용(2016), 정선정(2015)의 경우가 있는데, 교육과정 담론화의 구체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 도덕교육에 대한 함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볼노의 논의를 초등지리교육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례로 김현주(2020)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와의 연장선 속에서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볼노의 체험공간론을 참된 거주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장소의 페다고지 측면에서 논의를 맥락화하면서 지리교육 및 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학생들이 장소 학습에서 경관과의 실존적 만남을 행할 때, 그 만남의 방식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상세한 연구가 요망되고 있다. Knapp(2005, 281-283)은 레오폴드(Leopold, 1949)의 경관 읽기 활동을 장소 학습의 접근 방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후속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경이로움과 함께 의문을 가지기 ② 로컬 역사를 알기 ③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기 ④ 내적으로 경청하기 ⑤ 셈하고 측정하기 ⑥ 감정이입하면서 자연을 인격화하기 ⑦ 순환들속으로 요소들을 연결하기 ⑧ 아름다움을 찾기 ⑨ 성찰을 위한 고독을 도모하기 ⑩ 대지(land)의 건강을 개선하기.

참고문헌

- 강학순, 2007, “볼노의 인간학적 공간론에 있어서 ‘거주’의 의미”, 현대유럽철학연구, 16, 5-32.
- 김재철, 2009, “공간과 거주 현상학: 볼노의 공간이해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56(2), 367-391.
- 김현주, 2020, “초등지리교육에서의 어린이 공간”,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4), 1-16.
- 남호엽, 2019, “근대교육사상에 비추어 본 환경확대법의 아이디어”,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1), 1-13.
- 변순용, 2016, “볼노프(O. F. Bollnow)의 공간론 연구”, 윤리연구, 106, 203-219.
- 송원섭·조철기, 2023, “제주도의 토착지식을 활용한 장소 기

- 반 시민성교육”, *문화역사지리*, 35(2), 59-75.
- 정선정, 2015, “볼노우 공간론의 초등도덕교육적 함의”, *초등도덕교육*, 47, 275-300.
- Ardoin, N. M., Schuh, J. S., and Gould, R. K., 2012, Exploring the dimensions of plac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data from three ecoregional site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18(5), 583-607.
- Bachelard, G. 저, 곽광수 역, 2003, *공간의 시학*, 동문선(Bachelard, G., 1957, *La poétique de l'espac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Bollnow, O. F. 저, 이기숙 역, 2011,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Bollnow, O. F., 1963, *Mensch und Raum*, Cornelsen Verlag).
- Bollnow, O. F. 저, 한상진 역, 2006, *인간학적 교육학*, 양서원 (Bollnow, O. F., 1983, *Anthropologische Pädagogik*, Haupt Bern).
- Cresswell, T. 저, 심승희 역, 2012, *장소*, 시그마프레스(Cresswell, T., 2004, *Place: A Short Introduction*, Blackwell Publishing).
- Demarest, A. B., 2015, *Place-Based Curriculum Design*, Routledge, New York.
- Gruenewald, D. A. and Smith, G. A. (ed.), *Place-Based Education in the Global Age*, Routledge, New York.
- Heidegger, M. 저,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2008a, “건축함 거주함 사유함”, *강연과 논문*, 이학사(Heidegger, M., 2000a, *Vorträge und Aufsätze*, Verlag Günther Neske), 183-209.
- Heidegger, M. 저, 이기상·신상희·박찬국 역, 2008b, “...인간은 시적으로 거주한다...”, *강연과 논문*, 이학사(Heidegger, M., 2000b, *Vorträge und Aufsätze*, Verlag Günther Neske), 243-268.
- Hougham, R. J., Eitel, K. C. B., and Miller, B. G., 2015, Technology-enriched STEM investigations of place: Using technology to extend the senses and build connections to and between places in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Geoscience Education*, 63(2), 90-97.
- Hung, R., 2014, Learning as existential engagement with/in place: departing from Vandenberg and the Reams,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6(10), 1130-1142.
- Hutchison, D., 2004, *A Natural History of Place in Education*, Teachers College Press, New York.
- Jullien, F. 저, 김철아 역, 2016, *풍경에 대하여*, 아모르문디 (Jullien, F., 2014, *Vivre de paysage ou L'impensé de la Raison*, Gallimard).
- Knapp, C. E., 2005, The “I-Thou” relationship, place-based education, and Aldo Leopold,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27(3), 277-285.
- Leopold, A. 저, 송명규 역, 2006, *모래군의 열두 달 그리고 이곳 저곳의 스케치*, 도서출판 딱납(Leopold, A., 1949, *A Sand County Almanac and Sketches Here and Ther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Mumford, L., 1946, *Values for Survival*, Harcourt, Brace and Co., New York.
- Orr, D. W. 저, 김기대·이효진·이성희 역, 2013, *생태소양*, 교육과학사(Orr, D. W., 1992, *Ecological Literacy*, SUNY Press, New York).
- Rubel, L. H. and Nicol, C., 2020, The power of place: Spatializing critical mathematics education. *Mathematical Thinking and Learning*, 22(3), 173-194.
- Saint-Exupery, Antoine de 저, 염기용 역, 2022, *성채*, 범우사 (Saint-Exupery, Antoine de, 1948, *Citadelle*, Gallimard).
- Seamon, D. and Lundberg, A., 2017, Humanistic geography, Richardson, D. et al.(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Geography*, John Wiley & Sons.
- Sobel, D., 2004, *Place-Based Education: Connecting Classroom & Communities*, The Orion Society, Great Barrington, MA.
- Tuan, Y. F., 1976, Humanist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6(2), 266-276.
- Tuck, E. and McKenzie, M., 2015, *Place in Research: Theory, Methodology, and Methods*, Routledge, New York.
- Tuck, E., McKenzie, M. and McCoy, K.(eds.), 2016, *Land Education: Rethinking Pedagogies of Place from Indigenous, Postcolonial, and Decolonizing Perspectives*, Routledge, New York.
- Vandenberg, D., 1971, *Being and Education*,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Yemini, M., Engel, L., and Simon, A. B., 2023, Place-based education-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Education Review*; <https://doi.org/10.1080/00131911.2023.2177260>

접 수 일 : 2024. 01. 09

수 정 일 : 2024. 02. 21

게재확정일 : 2024. 02. 21

교신: 남호엽, 06639,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서울
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hynam@snue.ac.kr, 02-3475-2434)

Correspondence: Ho Yeop Nam, hynam@snue.ac.kr